안전시설물 등 '양호'…대피요령은 '글쎄요'

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점검 가보니

유도등·소화전 등 잘 정돈

직원들 '매뉴얼' 숙지 부족

광주동부소방서 소속 박판기(41) 소방교와 김록(33) 소방사가 22일 광주 L시네마에서 인명구조장비인 공기호흡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동부소방서가 소방안전점검에 나선 22일 오후 2시40분께 광주L시네마.

광주일보는 이날 동부소방서 소속 조상복(52·소방경), 김경철(45·소방장), 박판기(41·소방교), 김록(33·소방사)씨 등 4명과 함께 소방안전점검에 동행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심이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직원들은 유도등·옥내소화전·피난 계단·공기호흡기·방화셔터 등 소방시설물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다.

영화관 주변 소방시설물은 마치 점검에 대비한 듯 잘 정돈돼 있었다. 조 소방경이 9층 영화관과 피난 계단이 연결된 문을 열자, 문이 열리면서 유도등이 눈에 들어왔다. 김 소방장이 대피 계단에 설치된 유도등을 켜자, 불이 들어왔다.

이들은 대피 계단에 물건이 쌓여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영화관으로 향했다. 영화관에선 15초짜리 화재시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 멘트와 함께 이동경로가 적힌 화면이 보였다.

직원이 서 있는 영화관 입구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3.2㎏) 두 개가 비치돼 있었다. 공기호흡기는 직원이 착용한 뒤 이를 이용해 관람객들을 대피시키는 인명구조장비다.

직원들에게 공기호흡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한다는 L시네마 담당자의 말과 달리 여직원에게 사용법을 묻자, 해당 여직원은 잘 모른 듯 허둥지둥댔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K은행 1층 로비. 옥내 소화전을 비롯한 유도등이 잘 작동되고 있었다.

조 소방경 등은 비상계단 등 사고 발생시 피난 통로가 잘 확보돼 있는지, 물건 등이 쌓여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에 나섰다. 피난 통로가 잘 확보돼 있었다.

K은행 측은 일년에 한 번씩 직원 및 건물에 입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피훈련을 한다고 했다. 다만, 고객들을 위한 별도의 고객대피 훈련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점검 결과,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관리는 잘 돼 있었지만 정작 고객들을 대피시켜야 할 직원들은 대피 요령이나 소방시설 작동법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제도·매뉴얼이 아무리 잘돼 있어도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꾸준한 안전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문화재단 등은 이날 전남대 용봉홀에서 '2014 아시아 문화포럼'을 진행하면서 안전에 대해 매우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자료집에 비상구 위치·대피 요령 등을 적어 넣은 뒤 참석자들이 긴급 상황 발생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포럼 장소도 자료집에 나온 대로 비상구 등이 설치돼 있었다.

한 참석자는 "세미나를 자주 다녔는데, 비상구 위치와 대피 요령 등이 담긴 자료집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불감증이 화두인데, 이번 자료집을 보면서 안전에 대한 작은 변화가 일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23 해짐 19:35 달뜸 01:43 달짐 14:01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오후에 기온 크게 오르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15/29	보 성	맑음	14/24
목 포	맑음	16/25	순 천	맑음	14/28
여 수	맑음	15/22	영 광	맑음	14/28
나 주	맑음	12/29	진 도	맑음	14/24
완 도	맑음	15/25	전 주	맑음	14/30
구 례	맑음	11/30	군 산	맑음	14/26
강 진	맑음	15/25	남 원	맑음	12/30
해 남	맑음	15/25	흑산도	맑음	14/21
장 성	맑음	12/28			

◇ 바다 날씨

		오전 풍향	오전 파고(m)	오후 풍향	오후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	0.5	남동~남	0.5
	먼바다	남동~남	0.5	남동~남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	동~남동	0.5
	먼바다	북동~동	0.5~1.5	동~남동	0.5~1.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9:14	01:52
	21:54	14:47
여수	04:20	10:43
	17:04	23:00

◇ 생활지수

식중독	60
운동	50
빨래	90

◇ 주간 날씨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30(금)
15/29	17/23	18/25	16/28	15/29	15/28	15/29

'아픔의 땅' 팽목항을 지키는 사람들

안마사 임정국·배식담당 용미연·약사 최기영씨

"마지막 실종자 돌아올때까지 봉사"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을 훌쩍 넘긴 23일에도 실종자 가족들 곁에는 자원 봉사자들이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함께 하고 있다. 목포에서 안마사로 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임정국(49)씨는 지난 7일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안마봉사를 하기 위해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았다. 임씨는 자신이 지부장으로 있는 (사)대한안마사협회 전남지부 회원 등 12명과 체육관 한편에 '안마 봉사실'을 열었다. 안마봉사자들은 수시로 찾아드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주야간 2개조로 나뉘어 가족들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서 아픔을 함께했다. 봉사활동 초기 하루 평균 30~40명의 희생자 가족이 안마봉사실을 찾았는데 실종자가 16명으로 줄어든 이날까지도 그 숫자는 줄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과 마음이 지친 가족들이 안마를 받으며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다음날 TV를 통해 울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보고 이튿날 서울에서 진도 팽목항에 내려온 용미연(여·24)씨는 지금껏 팽목항을 뜨지 않고 있다. 팽목항에 머무는 실종자 가족이 3가구로 줄어든 지금도 그녀는 팽목항 구석구석을 오가며 배식 봉사등 궂은 일을 도와가며 실종자 가족 곁을 지키고 있다.

완도에서 약국을 하는 최기영(55)씨도 참사 다음날 약품을 갖고 팽목항으로 달려온 뒤 여지껏 실종자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다른 약사들은 수시로 교대를 하고 진도를 떠났지만 최씨는 약국을 약사인 딸에게 맡기고 팽목항 대한약사회 천막에 머물며 희생자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아침 6시부터 팽목항 곳곳을 돌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두유를 나눠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수옥(여·55) 한국재난구호 경기지부장도 여전히 팽목항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참사 초기 직접 끌고 내려온 밥차에 머물며 두유, 순두부찌개 등 콩요리로 팽목항 식구들의 건강을 책임진지 한 달이 넘었지만 쉽게 진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처음 내려올땐 길어야 한 달 정도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한 달이 지나고 보니 가족들을 두고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다"면서 " 마지막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때까지 팽목항을 떠나지 않고 봉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생명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에 살고 싶다"

세월호가족 대변인, 토론회서

실종자 구조·진상규명 강조

유경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22일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아껴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된 아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국회도서관에서 연 '세월호 대참사와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심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항간에서는 이미 죽은 아이들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이야기한다"며 "사람이 죽었든 살았든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족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나라에 가득 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서 실종자 구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철학이 담겨 있지 않아 아쉬웠다면서 "정부는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진상 규명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참사가 무의미한 사고가 되지 않으려면 가족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붕괴 진행' 구역 실종자 상당수 잔류 추정

대책본부, 3·4·5층에 가능성

선체 외판 절단은 마지막 수단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침몰한 세월호 내 붕괴 진행 구역에 실종자 상당수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책본부는 22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승객 예약 현황 등을 토대로 남은 실종자 16명이 3층에 6명, 4층에 9명, 5층에 1명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3층은 붕괴현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4층과 5층 승객 잔류 추정 구역에 이달 초부터 선체 약화가 진행돼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4층의 경우 선미 다인실 통로에 칸막이가 붕괴하거나 휘어지고 있으며 특히 선미 다인실 3곳 중 중앙 다인실과 좌측 다인실 사이 통로는 장애물이 쌓여 있던 곳에 칸막이마저 무너져내려 진입이 어려운 상태다. 5층 역시 선수 쪽 승무원 객실 통로와 중앙 특실 통로의 일부 칸막이가 이달 초부터 붕괴해 진입을 못하다가 전날 오전에서야 진입로 일부를 개척했다.

대책본부는 선체 외판 일부를 절단한 뒤 수상 크레인 등 장비로 장애물을 치우고 진입할 경우 그 기간에 기존의 잠수 수색을 중단해야 하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고 난 뒤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을 뿐 현 시점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